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해외초청전에 선보이는 아시아 국가의 의자 디자인 컨셉(왼쪽)과 7월께 영국 왕립예술대학과 공동 개최하는 '디자인 워크숍'에서 논의될 예정인 대나무 공예품 디자인 컨셉.

&lt;광주비엔날레재단 제공&gt;

## '거시기'한 일상에 '머시기'한 디자인 입힌다

택시기사 유니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광주·전남지역 쌀, 담양 대나무 등 광주·전남지역 거시기한 일상 소재들에 머시기한 디자인이 입혀진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오는 9월6일부터 11월3일까지 '거시기 머시기'를 주제로 열리는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을 100일(29일) 앞두고 기본 전시 컨셉을 발표했다.

◇ 30여개팀의 디자이너 참여=올해 행사는 주제전, 본전시, 특별전(2개), 색선전(워크숍과 국제학술회의 등) 등 크게 4개 전시 및 행사로 구성됐다.

주제전에서는 행사 주제인 '거시기 머시기'를 '올드 앤 뉴'(Old and New)의 맥락에서 풀어낼 예정이다. 시대의 변화 속 디자인의 흐름과 옛 것과 새로운 것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본전시는 디자인과 기술의 결합을 시도한다. 응합디자인, 공공디자인, 국제디자인전 등을 통해 디자인과 생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D- 100

### 택시기사 유니폼·전남 쌀·담양 대나무 등 생활 속 소재에 디자인의 결합 새로운 변신

활의 밀접한 관계를 이야기한다.

이 밖에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속 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디자인 산업화의 길을 찾아보는 특별 전과 색선전도 계획돼 있다.

◇ 일상에 파고든 디자인=오랜 시간 지역민과 함께 해온 생활 속 디자인도 새롭게 변신하게 된다. 국내 유명 디자이너 5명이 광주지역 택시 기사들의 유니폼을 최초로 만들고, 디자인비엔날레 기간 동안 택시기사와 시민들의 투표로 평가를 받는다. 재단은 선호도가 높은 유니폼을 선정,

광주지역 택시기사들이 실제로 착용 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농도 전남에서 생산되는 쌀에도 새롭게 디자인을 입혀진다. 광주지역

디자인업체들이 각 자자체의 브랜드

쌀 포장지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디자인비엔날레를 찾는 관객들에게 선물로 개발된다. 이렇게 단생한 양

밀, 침구류 등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

장에 첫 선보인다.

오는 7월에는 디자인 명문 학교인

영국 왕립 예술대학과 국내 대학 디

자인학과 학생들이 담양의 대나무 공

지를 주는 광주지역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도 디자인이 입혀진다. 광주지역 업체들이 5개 자치구와 협의해 예술이 가미된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 낼 예정이다.

전남방지 등 지역 패션업체와 참여 디자이너들의 협업을 통해 공동 브랜드도 개발된다. 이렇게 단생한 양

밀, 침구류 등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

장에 첫 선보인다.

오는 7월에는 디자인 명문 학교인

영국 왕립 예술대학과 국내 대학 디

자인학과 학생들이 담양의 대나무 공

예품에 현대적인 디자인을 입히는 방안에 관한 워크숍을 열고, 9월6일에는 국제학술회가 개최된다.

이 밖에도 전시관 야외광장에는 재활용 박스, 폐 현수막 등을 활용한 정원이 조성된다.

◇디자인비엔날레 정체성 확립= 광주비엔날레재단과 광주디자인센터는 올해 행사를 통해 디자인비엔날레의 정체성과 광주만의 디자인을 찾겠다는 목표다.

'삶을 비추는 디자인'(1회), 'L·I·G·H·T'(2회), '더 할 나위 없는'(3회), '도가도 비상도'(4회) 등을 주제로 열린 이전 디자인비엔날레는 예술과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경제와 산업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지난 행사를 통해 나름의 인지도를 형성했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gt;/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등 관계부처로부터 수시로 북한 동향을 보고받아 각종 정보를 취합하고 박 대통령에게 위급한 사안은 즉각 보고해 왔다.

그러던 중 김정은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지난 22일 전격 중국을 방문, 6자회담 북측 의사를 표명했으며 같은 날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 위원회가 다음달 15일 13주년을 맞는 6·15공동선언 행사를 남북이 함께 개최하고자 제안하는 등 북한측이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 변화 덕분에 김 실장은 지난 24일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집에서 잠을 자는 것으로 보인다.

다면, 그는 앞으로도 한 주에 2~3 일 정도는 종전처럼 청와대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안보 위기 고조되자 단 하루도 집으로 떠나지 못한 채 국방·외교·통일부와 국정원

&gt;/박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알림

## 제79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30일 오후 2시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조진성 교수 '재발·합병증 없는 갑상선암 치료'

광주일보와 전남대병원은 오는 30일 제79회 테마가 있는 시민 건강강좌를 개최합니다. 시민강좌는 전남대병원 전문 의료진이 직접 나서 강연하고,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 답변해 드립니다. 강의 내용은 오는 6월3일 광주일보에 게재됩니다.

■ 주 제: '재발 및 합병증 없는 갑상선암 치료를 위하여'

■ 강 사: 조진성 내분비외과 교수



- 대한갑상선학회
- 대한두경부종양학회
-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 한국유방암학회
- 대한외과학회
- 갑상선·유방암 전문진료

■ 일 시: 5월 30일(목) 오후 2시  
■ 장 소: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 문 의: 전남대병원 홍보실(062)220-5092  
교육연구실(062)220-6082

光州日報社·전남대병원

### 광주일보 김지율·이종행 기자 '이달의 기자상'

한국기자협회 선정 ... '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퇴출 계획' 보도



광주일보 사회부 김지율·이종행 기자가 '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퇴출 계획' 보도로 28일 한국기자협회의 제 272회 이달의 기자상(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기자들은 지난 4월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자체할 공식 주제곡을 공모 형식으로 제정하겠다고 이를 예상해 행진곡 제작한 사실을 최초로 확인, '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퇴출 계획?' <광주일보 4월 25일자 6면> 기사를 시작으로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퇴출 계획을 심층 보도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를 기록으로 5월 정신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을 위한 행진곡 퇴출 계획' 관련 보도 이후, 타 신문과 방송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

김지율 기자

이종행 기자

고, 정치권, 5월 관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도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기념곡 지정 주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식 기념곡 제정 촉구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시상식은 3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gt;/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6월 공식 출범

위원장 1명 포함 20명 이내 민간위원

#### 문화현장 정책 소통의 창구 역할

박근혜정부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인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가 다음달 공식 출범한다.

청와대는 28일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6월 중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융성위는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화융성위원회는 문화현장에 대한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는 정책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며 '문화를 통해 국민 행복과 국가발전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어갈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화융성위는 설치목적으로 국민 개인의 문화적 권리와 우리 사회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며 문화를 진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 융성과 관련해 ▲국가전략 ▲정책의

수립·시행 ▲법정부·민간단체 협력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사회 혁신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문화융성위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민간위원(임기 1년, 연임 가능)으로 구성·운영되며, 위원은 원로·중견·청년층 및 장르별로 다양한 문화 현장의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다. 정부 부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화융성위원회는 문화현장에 대한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는 정책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며 '문화를 통해 국민 행복과 국가발전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어갈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화 융성과 관련해 ▲국가전략 ▲정책의

&gt;/박경기자 jkpark@kwangju.co.kr

### 50년 전통 대를잇는 한의원

## 북경당 한의원

### 알레르기성 비염

### 축농증 코피 해결

### 비만클리닉

한의학 박사 박상준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주차장 입구

고객 주차장

주차장